



평화를
이루기까지
다하여라

정전70년

2023년 for the Korean Peninsula
Korea Peace Appeal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주일 예배

2023년 8월 13일(주일) 오후 2시 30분

향린교회 (서울 종로구 경희궁2길 11)

National Council Churches in Korea

N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화해·통일위원회



NOCKTV 혹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연합예배

목적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편 34:14)

1. 분단된 한반도의 화해와 치유를 위하여 세계교회와 함께 기도함
2.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실천을 통하여 남북 간 대립과 갈등을 극복함
3.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함
4. 한반도 평화통일 및 지구촌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세계교회들과 함께 협력하고 연대함

배경 광복절인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1.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총회는 전 세계교회가 매년 8.15 직전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기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는 세계교회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 예배문을 사용해주기를 소망하며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을 위한 예배문을 작성하였습니다.
3.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조선그리스도교련맹(KCF)에 제안한 초안입니다.
4. 2018년 남북 정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발표하여 평화, 번영, 통일의 새 길을 제시하였으나 한반도의 상황은 여전히 분단의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NCCK는 이 두 선언의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하여 ‘민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선언하였고, ‘한반도 종전 평화캠페인’ (Korea Peace Appeal) 전 세계교회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웃, 친지, 주변의 공동체와 함께 이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가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2023

한국교회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

2020년을 시작으로 2023년 9월까지 10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1 종전평화캠페인 서명운동을 시작하다



02 한국교회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발족



03 정전 69년 한반도종전평화 문화제



04 11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참석



05 427평화회의 및 평화행동 300곳 조직



06 세계교회와의 연대 및 캠페인 참여요청



07 NCKK 한반도평화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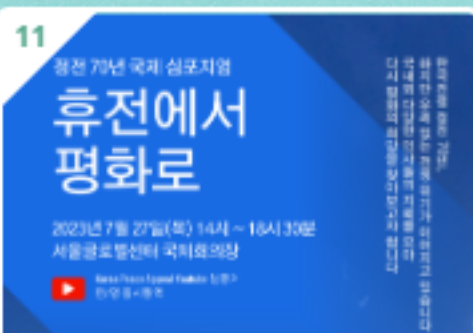
08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815 남북공동기도주일 예배



09 지역NCC와 협력, 전국서명운동



10 722 정전 70년 한반도평화대회



11 727 국제심포지엄



12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참석

NCKK화해통일위원회는 2024-2025년에도 종전평화캠페인을 진행합니다

2023년 8월 13일(주일) 오후 2시 30분, 향린교회

2023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예배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편 34:14)

사회: **하성웅 총무** (EYCK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모임

[영상]

(일어섭니다)

[입례 예식] 입례송에 맞추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며 상징물을 들고 입장합니다.

- 남측 성경 공동번역, 개신교와 가톨릭이 공동으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입니다.
- 북측 성경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이 번역하고, 북측교회가 실제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 한 몸 십자가 각기 다른 이름과 개성을 지닌 나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숲을 이룹니다. 한 몸 십자가는 서로 다른 이름이 십자가 구속의 은총 아래에서 조화와 평화, 연지를 이루는 교회공동체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 백두산 돌 분단의 아픔이 평화와 통일로 치유되기를 원하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입례송] 다같이 * 오소서 오소서



오 소 서 - 오 소 서 평 화 의 - 임 금



우 리 가 - 한 몸 이루게 하 - 소 서

1. 평화의 2. 정의의 3. 생명의

[예배로의 초대] 인도자

인도자 창조주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온 세계의 경계를 지으셨고, 우리를 그 돌봄 안에 두셨습니다.

회중 창조주 하나님, 당신의 창조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어주소서.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이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은 다하여라.”
(사편 34:14, 공동번역)

인도자 성령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공동체 안에서 연대하게 하셨습니다. 이 연대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국경을 초월합니다. 당신은 우리 안에 불을 붙이시어 우리를 믿음, 정의, 화해를 위한 열정으로 채우십니다.

회중 **창조의 하나님, 당신의 창조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어주소서.**

인도자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께 사형을 선고하며 진리를 억누르려했던 세상 권력에 저항함으로써 제자도의 대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은 죽음보다 강하였고 주님의 진리는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회중 **주님, 우리가 당신의 진리와 평화의 빛을 비추도록 도와주소서.**

(앉습니다)

[개회찬송] **다같이 *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 (찬송가 410장)

1.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2.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3.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4. 이 평화를 얻으려 고 주 앞 으로 나아갈 때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주 예수님과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주 하나님은혜로써 이 평화 누리도다
주 예수님 우리에 계 이 평화 주시도다

후렴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 일세

[기원]

인도자 하나님, 이제 우리 한민족이 평화, 번영, 통일의 새 길을 걷고자 합니다. 남북교회에 힘을 주셔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정신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한반도가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않아도 되는 땅, 평화로 하나가 된 땅, 그 땅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회중 **성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죄의 고백] 인도자

용서의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당신의 길에서 다른 길로 벗어나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서로를 존중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웃의 필요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우상처럼 여겨 주님이 주신 화해의 명령보다 중시합니다. 이웃의 상처를 무시하며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만을 돌보아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걸음을 걷지만, 금세 지치고 힘을 잃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길로 돌이키시어 우리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채워 주시고, 당신의 자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응답송] 다같이 * 주여, 주 예수여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response song. It consists of two systems of music, each with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line. The key signature is one flat (B-flat) and the time signature is 3/4.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vocal lines.

System 1:
 Je - sus, re - mem - ber me when you come in - to your king - dom
 주 여 주 미 수 여 자 를 기 억 태 주 소 서

System 2:
 Je - sus, re - mem - ber me when you come in - to your king - dom
 주 여 주 헤 수 여 앙 신 나 리 임 하 실 태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이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은 다하이라.”
(시편 34:14, 공동번역)

[용서의 선언] 인도자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기쁨을
여러분들의 자매와 형제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말씀

[오늘의 기도] 송병구 목사 (NCKK 화해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색동교회 담임)

[성서 읽기] 마태복음 5장 23-24절 * 이광원 목사 Kurt Esslinger (한반도평화포럼 실무자)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
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가 화해하고 나
서 돌아와 예물을 드리라. (공동번역)

[말씀송] 다같이 *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F C7 F Gm Bm F/C C7
이 말 씀 따 - 리 사 는 동 안 지 지 지 않 - 게 아 시 고

F A7 Dm /C B7 F/C C7 F
이 말 씀 따 - 리 사 는 동 안 주 님 나 라 이 루 소 서 -

[특송] 향린교회 국악예술단 예향 *

[말씀 나눔] 한기양 목사 (NCKK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가장 절실한 '화해'와 '통일'"

감사와 응답

[중보기도] 말은이 * 2023년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 (남측초안)

다같이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일치를 이루신 주님(렘 2:14),
이 시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 최수산나 국장 (NCKK 화해통일위원회 서기,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

사랑의 하나님,

정전 70년이 되는 해이지만, 여전히 남과 북(북과 남)은 서로를 적대시하
며, 보이는 철조망보다 보이지 않는 더 큰 마음의 빗장이 우리 민족 사이
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잠시 불어왔던 봄바람은 사라지고 냉기만이 감도는 땅이 되었
습니다. 전쟁의 위험은 더 커지고 강대국들은 이 땅 백성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기 이익에 유리한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그
리워하면서도 미워하며 살아야 합니까?

주님, 사랑의 묶는 띠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 이은주 목사 (NCKK 화해통일위원회 위원, PCUSA미국장로교회 선교동역자)

소망의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평화와 통일의 작은 씨앗마저 포기하지 않
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평화의 임금으로 고백하는 이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 주셔
서,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희망의 씨앗을 싹 틔우게 해주십시오.

민족의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화해와 평화의 언덕을 오르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저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게 해주십시오.

“뫋던 일을 하지 말고 적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람은 다하여라.”
(시편 34:14, 공동번역)

+ **이은재 청년** (기독교반성폭력센터, 세계교회협의회WCC 청년위원회 위원)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미가 4:3)는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의 미래는 우리 민족의 힘과 지혜로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남과 북이 공존과 번영, 화해와 통일을 위해 다시 손 맞잡게 해주십시오.



+ **박명숙 막달라마리아** (NCKK 화해통일위원회 위원, 대한성공회 통일선교위원장)

정의와 생명의 하나님,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이 극에 달하고 있고,
평화의 상징이 되어야 할 DMZ가 긴장이 고조되며,
신냉전의 대결구도가 명확해지는 ‘선’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 나라 일본이 핵 오염수를 투기하며 주변국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바다를 위험에 빠뜨림은 물론 세계시민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 지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저들의 행동을
멈추게 하소서.
이 일을 위해 남과 북, 북과 남이 한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하나 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회중 **정의와 평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문은 교회협이 조그련에 제안한 초안입니다.)

[봉헌 찬송] **다같이 * 돌이 하나가 되리 * 국악찬송가 168장**

류형선

류형선

자진 곳거리



1. 마른 뼈 들에게 생 기를 불 어 넣 어 - 주 셧 네
2. 나 무 막 대기를 불 여 서 하 나 되 게 - 하 셧 네



뼈 와 뼈 를 모 아 힘 줄 을 곧 게 이 어 - 주 셧 네
따 로 들 이 었 던 막 대 기 곧 게 이 어 - 주 셧 네



살 불 이 고 가 죽 썩 워
들 이 서 로 하 나 되 게



살 불 이 고 가 죽 썩 워
들 이 서 로 하 나 되 게



주 의 숨 결 힘 - 켓 불 여 서
주 의 손 이 불 들 고 있 으 리



주 의 숨 결 힘 - 켓 불 여 서
주 의 손 이 불 들 고 있 으 리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모든 힘을 다하라.”
(시편 34:14, 공동번역)



Dm B^bmaj⁷ Dm

마 른 뼈 들에 게 생 기 를 불 어 넣 어 - 주 셨 네
들 이 하 나 되 게 하 리 라 들 이 하 나 - 되 리 라

Gm G

두 번 다 시 두 번 다 시

두 번 다 시 두 번 다 시

Dm

죽 는 일 없 으 리 사 망 은 없 으 리
나 뷔 지 않 으 리 헤 어 짐 없 으 리

Dm

흠 - 흠 -

세상으로 나아감

[파송사] 김종생 목사 (NCCK 총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방 안에 이 평화를 숨긴 채 안일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은 우리 주변의 가깝고 먼 모든 이웃
 들과 함께 평화를 나누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등하고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이 평화를 수행하도록 우
 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평
 화는 폭력의 모든 음모보다 더 강력합니다.
 평화는 위험한 이상 숭배에 도전합니다. 평화는 갈등의 경계를 넘어 우리
 를 연대하게 합니다.
 평화가 여러분에게 채워져 차고 넘쳐흐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다함께 이제,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여러분 옆의 자매와 형제와 함께 그 평화를 나누십시오.

+ 모든 사람이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라. 평화는 이루기까지 있는 엄은 다하리라.”
(시편 34:14, 공동번역)

[파송 찬송] **다같이 * 평화가 있기를 * 국악찬송가 116장**

류형선



1. 평화가 있기를 - 평화가 있기를 -
2. 너희들 가운데 - 깃 - 든 평 화 는 -
3. 헤뜨는곳에서 - 지 무 는 곳 까 지 -



너희에게 하늘의 평화가 깃들 어 있 기 를 -
죽 - 음 의 능 력 보 - 다도 크 - 고 깊 으 니 -
너희안에 깃든 참평화를 널 - 리 전 하 라 -



힘 을 - 내 라 - 힘 을 - 내 라 -



끝 날 까 지 내 평 - 화 가 합 께 할 것 이 니 -

[알림과 사림] **남기평 목사 (NCKK 화해통일국 간사)**

> 종전평화캠페인 보고 * 황수영 팀장 (경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상황실장,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축도] **나해집 목사 (한국교회 종전평화캠페인 본부장, 열린교회 담임)**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관련 자료 살펴보기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서명하러가기



한국교회종전평화캠페인
2021-2023년 보고



2013 부산WCC 총회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



2022 랑스루헤WCC총회
한반도 종전과 평화구축에 관한 의사록

[알립니다]

* 매년 "세계교회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장소사용에 협조로 애써주신 향린교회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와 함께한 임사자와, 특별히 향린교회 국악예술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NCCK는 종교시민사회와 함께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을 2023년 9월까지 10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부탁드립니다.

* 축도 후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모두들 캠페인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세요.

2023년 한(조선)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 (남측초안)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일치를 이루신 주님(엡 2:14),
이 시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정전 70년이 되는 해이지만, 여전히 남과 북(북과 남)은 서로를 적대시하며, 보이는 철조망보다 보이지 않는 더 큰 마음의 빗장이 우리 민족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한(조선)반도에 잠시 불어왔던 봄바람은 사라지고 냉기만이 감도는 땅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위험은 더 커지고 강대국들은 이 땅 백성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기 이익에 유리한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그리워하면 서도 미워하며 살아야 합니까? 주님, 사랑의 묶는 띠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소망의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평화와 통일의 작은 씨앗마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평화의 임금으로 고백하는 이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희망의 씨앗을 싹 틔우게 해주십시오. 민족의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화해와 평화의 언덕을 오르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저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미가 4:3)는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의 미래는 우리 민족의 힘과 지혜로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남과 북(북과 남)이 공존과 번영, 화해와 통일을 위해 다시 손 맞잡게 해주십시오.

정의와 생명의 하나님,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이 극에 달하고 있고, 평화의 상징이 되어야 할 DMZ가 긴장이 고조되며, 신냉전의 대결구도가 명확해지는 '선'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 나라 일본이 핵 오염수를 투기하며 주변국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바다를 위협에 빠뜨림은 물론 세계시민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 지구를 위협에 빠뜨리는 저들의 행동을 멈추게 하소서. 이 일을 위해 남과 북, 북과 남이 한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한(조선)반도를 넘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하나 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의와 평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가장 절실한 ‘화해’와 ‘평화’ * 한기양 목사 (NCCK화해통일위원장)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 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24절)

한국전쟁이 휴전된 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서로를 적대하며 냉랭하게 응시하는 증오의 시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체결하는 일이 생존과 안보의 첩경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판문점선언, 9·19평양선언 등을 토대로 다시금 남북 화해정책을 펼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세계역사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북 젊은이 2백만여 군인이 70년 넘게 중무장을 한 채 서로 노려보며 민족 역량을 소진하는 이 분단체제는 더 이상 지속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휴전상태를 끝내는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 원년을 선포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성서의 복잡한 율법을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말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관계 개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인 본문의 말씀도 형제에게 원망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먼저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해는 우리의 사고와 태도를 바꾸고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신앙적으로 말하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바로 곁에 있는 사람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일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서가 말하고 있는 화해와 평화입니다. 분단 78년의 아픈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화해이고 평화입니다. 분단 78년이 지났지만 지금 한반도에는 아직도 분단체제가 공고합니다. 미움과 적대감정이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분단체제 아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쪽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화해를 하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체제로 78년을 살아온 같은 민족이 민족동질성을 찾아 서로 화해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이념적인 논쟁도, 정치적인 시비도 다 뿌리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녔을 위해 기도하며 나눔의 손길로 돕는 데 앞장서며 화해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사랑(요13:34) 이웃사랑(막12:31) 원수사랑(마5:44)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그 모든 것에 해당하는 ‘복녔동포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 19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매우 어렵고 의기소침한 상태이지만, 평화를 위한 일을 위해서는 지지 않도록 주님께 간구합시다.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앞서 가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편 34편 14절)

정전 70년,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성명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엡 2:14)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시 34:14)

세계교회협의회(WCC) 중앙위원회는 최근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그리고 북측의 미사일 실험과 같은 군사적 대응의 악순환으로 한반도 내 전쟁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갈등과 긴장의 고리를 끊어내고 평화와 대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전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땅에서 긴장과 대결의 구도가 다시 증폭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아직 공식적으로 종전이 선언되지 않았으나 올해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정전 70주년이 되는 중대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기억합니다.

2019년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이 돌연 결렬된 이후 남북관계는 크게 악화되어 왔습니다. 2020년 6월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철거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남북 정부, 민간단체, 시민사회, 교회 공동체간의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WCC는 40여년 가까이 남북의 그리스도인들 간 만남을 주선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 에큐메니칼 연대를 지지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제사회의 혼란 속에서 2019년 12월 이후 조선그리스도교연맹(Korea Christian Federation, KCF)과의 교제가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암울한 상황을 마주하며 우리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자매와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분단으로 갈라진 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도하는 에큐메니칼 공동 증언과 연대행동이 재개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재 고조되고 있는 도발과 대결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합니다. 한국전쟁의(1950년~1953년) 종전을 공식적으로 선포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 여전히 휴전에 봉착해 있다는 것은 갈등으로 치달는 남북 관계를 보다 불안정하게 심화시키며 더불어 현재 한반도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건설적이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KCF) 간 오랜 신뢰와 약속이며, WCC도 이를 전폭 지지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지난 11차 칼스루에 총회에서 채택된 한반도 평화 의정서와, WCC의 '평화의 빛' 프로젝트에 반영된 것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앙위원회는 한국전쟁에 공식적인 종전을 선언하고 1953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아래와 같이 깊이 호소합니다.**

우리는, WCC의 모든 회원교회와 에큐메니칼 협력 파트너, 특히 1950년~53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의 교회공동체가 각 해당국 정부와 함께 한반도 화해와 평화협정을 공동으로 지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미국, 일본, 한국, 북한 정부가 역내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인 발언과 군사적 행위를 자제하며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상호 대화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 능력의 고도화는 여전히 자제되어야 하지만, 북한 주민과의 민간교류와 협력, 정치적 대화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대북 제재 '최대 압박 [1]'완화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우리는, 깊은 신뢰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앞당기는 중요한 매개로서, WCC 사무국이 가능한 한 시급히 전 세계 에큐메니칼 공동체의 대표자들과 함께 남북한 그리스도인들 간의 실질적인 '민민 - 민민' 교류를 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WCC의 회원교회와 에큐메니칼 협력 파트너 그리고 세계의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 한반도 땅에서 "평화를 이르게 하는 일들"(눅19:42, 롬14:19)에 대해 성찰하고, NCCK가 추진하는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Korea Peace Appeal)'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2]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교회와 연대하여 지역과 세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일구기 위한 노력에 전 세계 에큐메니칼 공동체가 참여할 것을 권면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한반도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제재는 주로 북한의 군부와 엘리트층을 겨냥했지만, 최근 몇 년 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소위 '최대 압박'이라고 하는 북한 관련 무역, 투자, 금융 거래에 대한 거의 전면적인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유엔 기관은 인도주의적 및 인권 영향 평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매년 8월 15일 전 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남북한 모두가 광복절로 지키는 8월 15일은 1945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압제에서 독립한 날이지만, 한반도가 두 국가로 분단된 날이기도 합니다. 본 기간에 조선그리스도교연맹(KCF)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전통적으로 매년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공동기도문을 작성하는 데 협력해 왔습니다.

2023년 6월 26일, 세계교회협의회(WCC) 중앙위원회



Let's

N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화해·통일위원회

END

Sign Now!

THE



KOREAN

#19530727

WAR



